

## 해마다 베풀어주시는 사랑어린 귀중한 돈

히가시오사까조선초급학교 교장 고전식

매해 4 월이면 우리 학생들을 위해 한푼두푼 모으신 귀중한 돈을 가져와주시는 한 동포가 계신다.

그 동포란 바로 우리 학교 근처에 거주하시는 박덕수고문님이시다.

박덕수고문님은 매일 아침 전차를 타고 등교하는 우리 학생들의 교통안전을 위해 고령인 몸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학교 가까이 역에서 학교까지 학생들과 함께 걸어서 와주실뿐아니라 1 년간 매일처럼 하루 100 엔 이상을 저금하신 돈과 빈 깡통을 모아 팔다 얻은 돈을 합해 해마다 10 만엔을 넘는 돈을 우리 학교에 회사해주신다.

그것도 모자라 신형코로나비루스로 인하여 학생원아들과 교직원들속에서의 감염확대가 우려되는 올해 봄은 오늘날 구입하기가 힘든 마스크를 200 장이나 마련 해주셨다.

언제나 우리 학교와 학생원아들을 첫째로 생각하시어 아낌없는 사랑과 배려를 돌려주시는 박덕수고문님의 소행은 우리 학교 학생원아들과 교직원들 그리고 지역동포들에게 큰 힘과 용기, 정깊고 흐뭇한 느낌을 안겨주고있다.